

17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609.30 (-1.06)	765.06 (-0.73)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897 (+0.017)	1370.10 (+7.50)

e커머스 힘주는 빅테크... 전자상거래 시장 격변 예고

m-커버스토리

온라인 쇼핑고객 잡아라

e커머프 플랫폼 할인전 앞두고 네이버·카카오 등 고객 유치전 초개인화 선물추천 서비스 등 AI 기술 접목으로 편의성 강화

기존 전통적인 채널 업체들의 고객 유치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e커머스 사업 다각화를 통해 공격적인 고객 확보전에 뛰어 들었다.

SSG, G마켓, 롯데온, 11번가 등 유통분야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분야까지 e커머스 사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주요 업체

NAVER kakao

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e커머스 플랫폼의 할인전이 본격 시작되는 11월에 앞서 네이버, 카카오 등 비전통적인 e커머스 채널들의 고객 유치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유통 업체들이 고객과 셀러 확보를 위해 멤버십을 강화하고 나섰다. 네이버, 카카오는 AI 기술을 활용한 쇼핑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쇼핑 편의성을 높여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는 지난 9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개인화 상품 추천·검색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스토어'를 선보였다. 네이버플러스스토어는 취향에 맞는 상품 혹은 비슷한 성별·연령대가 많이 찾는 제품을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 2분기 실적발표회를 통해 "기존 최저가 중심의 가격비교 서비스에서 나아가 네이버만의 데이터·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쇼핑 서비스를 하반기 중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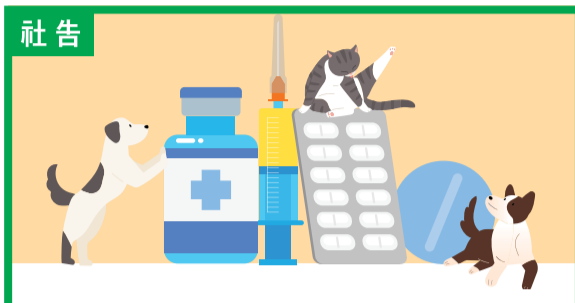
카카오도 자사 커머스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카오톡 선물하기에 초개인화 추천

서비스인 'AI 선물탐험'을 운영 중인 카카오는 향후 e커머스 분야에 AI를 접목시키는 것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스타일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는 앞서 AI 이미지 검색 서비스인 '직책렌즈'를 선보였다. 셀럽들이 입은 옷, 악세서리 등을 AI 이미지 검색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처럼 AI 기술 접목을 통해 커머스 사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티메프 사태를 통해 기술력의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4면에 계속>**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제약 & 바이오포럼'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 반려동물 위한 헬스케어

<메트로경제>가 10월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를 주제로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개최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증가 추세입니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KREI)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비중은 2010년 17.4%에서 2020년 27.7%로 증가했고, 2023년엔 전체 인구의 30% 가량인 15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 2021년 3조4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급팽창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통계청에서는 2020년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현재 살고 있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까?'란 질문을 새로 추가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을 위한 음식과 건강관리식품에서부터 치료제, 의료기기,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과 상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치약, 샴푸와 같은 세정제는 물론, 건강기능식품, 치료제가 동물에게 안전하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이번 2024 제약&바이오포럼을 통해 반려동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계와 관련 산업계의 기술동향을 점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계뿐 아니라 반려동물 양육가구에도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행사명 : 2024제약&바이오포럼
- 일시 : 2024년 10월 23일 오후 2~5시
- 장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3층)
- 주제 : 반려동물을 위한 헬스케어
- 기조강연 : 김원일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장
- 강연 :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이사 최진식 그라스메디 대표이사 이진환 지엔티파마 박사 경현태 아우라케어 대표이사 유성기 애니멀 프리이니셔티브 대표 임윤지 VIP동물의료센터 암센터원장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4 제약·바이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한강 "지난 일주일, 특별한 감동"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이 "지난 일주일,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한강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린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써가면서 책 속에서 독자들을 만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저의 일상이 이전과 그리 달라지지 않기를 믿고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강이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소회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강(가운데)이 정몽규 HDC 회장(오른쪽), 고(故)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씨(왼쪽) 등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담대 금리 상단 7% 육박

은행권, 조달비 상승·당국 압박 우대금리 내리고 가산금리 올려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음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육박하고 있다.

은행권 조달비용이 상승했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줄이고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4%로 8월(3.36%) 대비 0.04%p 상승했다. 코픽스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4개월 만에 반등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헌품 금리가 인상되거나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코픽스가 상승 기조로 돌아서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일부터 상향됐다.

5대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전날 기준 연 4.57~6.67%로 집계되면서 금리 상단이 연 7%에 다가서고 있다.

앞서 지난 8월에도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1~6.72%를 기록하면서 연 7%에 육박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주담대의 경우 6개월물 변동형 상품 금리는 연 4.49~7.28%로 이미 상단이 7%를 넘었다.

한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낮추고 가산금리를 조절하면서 대출 금리는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금리인상 압박을 가했고, 은행들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에서 최대 5차례까지 대출금리를 인상했다.

<2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동훈 "풀뿌리 민주주의, 여당이 압도... 실력 발휘해달라" /사진 뉴스스
▲ 21일 서울서 한영 외교장관 전략대화... 관계 격상 후 첫 개최

▲ 홍준표 "한동훈, 원조 김여사 라인... 주변 '칠상시'나 제거하라"
▲ 판사들 '사형' 선고 피하는 분위기?... "대법원, 사형에 엄격한 기준"



▲ 조태열, 유엔개발계획 총재 면담...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사진 뉴스스
▲ 송형근 도의원 "전남도, 우주항공 독립부서 신설해야"